

대구 섬유박람회 3월 12-14일 EXCO 개최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섬유산업 행사인 대구국제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 PID)가 3월12일부터 3일 동안 대구 EXCO에서 개최된다.

2008년 8번째 개최되는 PID는 내실이 없는 행사라는 과거 지적에 따라 참가 기업수가 2007년(194곳)보다 약간 많은 220여곳을 유치한 반면, 제품 구매력이 있는 진성 바이어를 찾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2008년 PID에서는 세계적인 야외 스포츠 의류 수출기업인 영원무역 등 국내 섬유기업 220여곳이 부스를 열고 중국 다운재킷 1위 생산기업인 Bosdong과 프랑스 Chanel 등 해외바이어 1400여명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역 섬유기업에 유통기업을 연결해 주는 기관인 대구섬유마케팅센터(DMC)가 슈퍼리어 등 서울 우량 기업과 동대문 원단 도매시장 바이어들의 행사 방문을 주선하고 내수 계약실적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프랑스 Chanel 본사의 원단 구매 총괄자인 김영성씨가 국내기업들의 제품 품질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고, Bosdong과 동방낙타 등 중국 주요 의류기업들이 중국 CCTV 2 방송과 Shanghai 일간지 신민완보 등 자국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 회견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섬유업계의 호재로 꼽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행사의 주요 주제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인 섬유기업인 단체들이 FTA 이후 한국-미국의 교역량을 늘리기 위한 세미나를 열고 대구·경북본부세관은 특별 홍보관에서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FTA로 바뀌는 섬유 관세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바이어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현풍 도동서원과 남평 문씨 세거지 등 지역 사적을 둘러보는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화학저널 2008/03/07>